



# 홍콩 반려동물 사료시장, 브랜드 · 원산지보다 원료 · 기능성 주목

## 세계 11번째 규모의 반려동물 사료시장 홍콩

USDA에 따르면 홍콩은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규모의 반려동물 사료(pet food)시장이자 사료무역의 중심지이다. 2020년 1~9월 홍콩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약 9.9억 홍콩달러 규모의 개와 고양이 사료(HS코드: 230910)를 수입했으며, 그중 약 63%는 중국, 마카오, 대만 등 인근 국가로 재수출되었다. 한편 유로모니터는 홍콩의 반려동물 시장을 20년 16.2억 달러에서 25년 20.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조사통계국에 따르면 약 24만 가구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 전체 가구의 9.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들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은 약 37,000홍콩달러(약 560만원)이며, 이중 약 44%는 월 소득이 40,000홍콩달러(약 61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완전한 영양(Complete Nutrition)”, 프리미엄 영양식이 트렌드!

최근 홍콩의 반려동물 사료시장은 세분화되고 있다. 단순히 저가, 고가의 사료시장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영양물질(비타민, 미네랄, 콜라겐, 유산균 등)을 첨가한 기능성 사료의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지고 무곡물 사료(Grain Free), 동결건조·자연건조, 육포, 스튜(stewed), 그레이비( gravy) 제품 등 원재료 함량이 높은 고단백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홍콩의 반려동물용품 체인점 Mega Pet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나 미국산, 캐나다산 제품 선호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제품의 원료와 기능성 등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증가했다”며 “브랜드나 원산지 충성도는 낮아지고, 영양 성분에 주목하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전했다.

## 홍콩의 반려동물 사료 유통 현황

### · 슈퍼마켓 : ('15) 38.1% → ('19) 32.5% / 5.6% 감소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중저가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판매 비중은 매년 감소함

### · 반려동물용품점 : ('15) 51.5% → ('19) 54.1% / 2.6% 증가

반려동물용품점(Pet Shop)은 고객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해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바꾸거나 새로운 제품을 찾는 경우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취급하는 전략을 취해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충성고객을 확대함

### · 동물병원 : ('15) 6.8% → ('19) 7.6% / 0.8% 증가

수의사의 추천 또는 처방을 신뢰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고정 수요를 유지함

### · 전자 상거래 : ('15) 3.6% → ('19) 5.8% / 2.2% 증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출이 활발함. 홍콩 온라인몰 HKTVmall에서는 2020년 11월 기준 2,108종의 개 사료가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은 311종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자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도 있음. 자사 제품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효능 등의 특징점을

출처 :

① Euromonitor, 「Dog Food in Hong Kong, China」, 2020.05

② USDA, 「Hong Kong Pet Food Market」, 2020.08

③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Thematic Household Survey Report - Report No. 66, Keeping of Dogs and Cats」, 2019.0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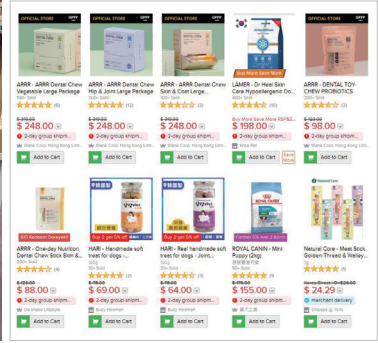
[ 홍콩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 ]



▲ 슈퍼마켓



▲ 반려 동물용품점



▲ 온라인 쇼핑몰

자료원 : Fresh 슈퍼마켓,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 Pet Line(자체 촬영), HKTvmall (2020.11 기준)

홍보하고 제품의 생산시설, 인증서 등을 상세하게 게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음

**홍콩 소비자를 사로잡는 한국산 프리미엄 사료**

2020년 1~9월 기준, 한국은 홍콩의 반려동물 사료 7위 수입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2.5%인 25백만 홍콩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체중 관리, 장 건강, 알레르기, 피부, 관절 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제품 판매가 눈에 띈다.

또한, 녹용이나 홍삼 등 한방 성분을 첨가한 제품,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공정을 거친 휴먼 그레이트(Human Grade) 제품, 유기농 인증-에코서트(EcoCert) 인증 획득 등의 프리미엄 사료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홍콩의 반려동물용품 체인 Pet Line의 관계자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 중 신선 재료로 만든 동결건조 제품이 인기

다.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사용된 원료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현재 닭가슴살, 오리, 소고기, 황태, 참치, 연어 등 다수의 한국산 동결건조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Key Point**

펫팜족(Pet+Family), 펫코노미(Pet+Economy) 등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추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범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특히 반려동물을 인간처럼 대우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반려동물 사료시장의 프리미엄화, 세분화에 속도가 붙었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브랜드보다 내 가족이 먹는 제품을 고른다는 마음으로 원료, 영양성분, 기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어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더욱 정교해졌다. 아직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만큼 반려동물용품점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진출이 용이하고 초기 진입 비용이 적은 온라인 유통도 고려할 만하다.

[ 한국산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

				
<p><b>Natural Core</b> 오리&amp;고구마 사료 HK\$142/1.2kg 유기농 인증 획득 (USDA&amp;에코서트) Pet Market 판매</p>	<p><b>arr</b> 치석 제거 껌 2HK\$98/200g(10입) 장 건강, 관절, 피모 등 기능성 세분화 자사몰 판매</p>	<p><b>조공</b> 한방 보양 갈비탕전 HK\$59/15g(4입) 한우, 녹용, 홍삼, 대추 등 한방 재료 사용 슈퍼마켓 판매</p>	<p><b>LAMER</b> 스킨케어 사료 HK\$198/1.6kg 피부 건강 사료 (항산화 물질 첨가) HKTvmall 판매</p>	<p><b>Iskhan</b> 5세 이상 시니어 사료 HK\$198/1.6kg 소화 저하, 근육 쇠퇴 등 노령견 맞춤 사료 MochiDog 판매</p>

자료원 : Pet Market, 아르르 자사몰(arr.hk), HKTvmall(www.hktvmall.com), MochiDog(www.mochidog.com.hk)